

애플, 아이폰 폭발 “악몽 재현”

스크린 파편에 눈 맞아 부상 ... 애플은 제품과의 관련성 부인

프랑스에서 애플의 휴대폰 아이폰(i-Phone) 폭발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프랑스 남부 가르 지방에 살고 있는 야신 부아디는 8월25일 현지언론에 “24일 오후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폭발했다”고 밝혔다.

부아디는 이 사고로 스크린 파편에 눈을 맞아 부상했다면서 치료를 받은 후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폰을 3개월 전에 600유로에 구입했다는 그는 “애플이 사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환불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8월13일 남부 엑상프로방스 지방에서도 18세 청소년이 여자친구의 아이폰이 폭발하는 바람에 스크린의 유리파편에 눈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애플은 아이폰과 휴대용 MP3인 아이팟(i-Pod) 폭발사고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유럽연합(EU)에 “지금까지 확인된 폭발사고는 별개의 사고”라며 제품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8/27>